

#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사서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Librarians on Educational Graphic Novels

임 여 주(Yeojoo Lim)\*\*

### 목 차

1. 서론	4.1 학교에서의 학습만화 이용행태
2. 관련연구	4.2 학습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2.1 학습만화의 정의	4.3 학습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2.2 학습만화의 특징	4.4 학습만화 평가 기준에 대한 필요성
2.3 선행연구	5. 결론 및 제언
3. 연구방법	5.1 결론
4. 연구결과	5.2 제언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학습만화 열풍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은 대체로 학습만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학습적인” 학습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학습만화가 또래에 비해 읽기능력이 뒤처지는 어린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 모두가 학습만화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고 있었다.

### ABSTRACT

This study is part of a larger project that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children's use of educational graphic novels (EGNs), a publication format that has been popular among young readers in Korea since 2000. In-depth interviews with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librarians uncovered tension and gaps between these adult professionals and children's enjoyment of the format. Interviewees' views on EGNs ranged from limited tolerance to a potential candidate for high-interest / low-vocabulary reading. All teachers and school librarians urged for guidelines and criteria for selecting and evaluating EGNs for children.

키워드: 어린이, 학습만화, 만화, 교사, 사서교사, 독서

Children, Educational Graphic Novels, Comics, Teacher, School Librarian, Reading

\* 본 연구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Yeojoo Lim, 2012, *Seriously, What Are They Reading? An Analysis of Korean Children's Reading Behavior Regarding Educational Graphic Novels*, Ph.D. dis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일부임.

\*\* 명지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yeojoolim@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12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1월 2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41-360, 201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341]

## 1. 서론

2007년 4월 28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만화책,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도서관계, 만화계, 시민계의 사람들이 모여 어린이들의 만화책 이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이었던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라경례 사서는 토론회를 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의 어린이실에서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학습만화 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이었다고 했다. 당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근처 초등학교들의 학교시간이 되면 엄청난 수의 어린이들이 학습만화를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뛰어들어 왔다.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이 소음과 혼잡에 불만을 표하자 사서들은 학습만화를 별도의 서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소음과 혼잡은 계속되었고, 가장 인기있는 학습만화들은 높은 이용률 때문에 급격히 훼손되었다. 결국 사서들은 높은 이용률로 인해 훼손된 학습만화 250권을 서고로 이동하고 그 책들이 ‘수선중’이어서 이용 및 대출이 불가하다는 공고를 내었다. 그 후 도서관의 온라인 게시판과 어린이실 대출반납대에는 사라진 250권의 행방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놀랍게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250권이 사라진 후에도 2007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책 100권 중 60권은 학습만화가 차지했다(라경례 2007).

학습만화를 둘러싼 이와 같은 갈등상황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sup>1)</sup>를 시초로 학습만화 열풍이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학교도서관, 초등학교 교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학습만화 열풍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의 실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사서교사와 담임교사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하루 일과 중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독서를 하는 장소는 주로 교실이나 학교도서관인데, 이 장소들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의 독서행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어린이들의 독서지도에 관심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초등학생의 학습만화 읽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만화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습만화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국한되어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는 다양한 연구대상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특정한 시각을 갖게 된 경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Henn, Weinstein, and Foard 2006, 141).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서교사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이 학습만화와 어린

1)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가나출판사에서 펴낸 학습만화 시리즈로, 2000년 초판 발행과 동시에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이며 학습만화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의 독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 2. 관련연구

### 2.1 학습만화의 정의

만화는 다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 오락, 학습, 카타르시스가 바로 그것이다. 만화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다[오락적인 기능].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학습을 촉진시키며 어휘력을 향상시킨다[학습적인 기능]. 그리고 긴장감을 완화 또는 해소시켜주며 마음을 가볍게 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갖게 해준다[카타르시스의 기능] (김승민 1989; 노은혁 2006; 황해연 2006). 이러한 만화의 기능들 중 학습만화는 학습적인 측면에 집중한다.

김승민은 학습만화가 교육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하나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도 흥미를 갖도록 동기 유발의 능력을 길러 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만화”라고 정의하였다(1989, 28). 황해연은 학습만화를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형태로 제작되어 하나의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도 흥미를 갖도록 동기유발의 능력을 길러 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만화”라고 정의하였다(2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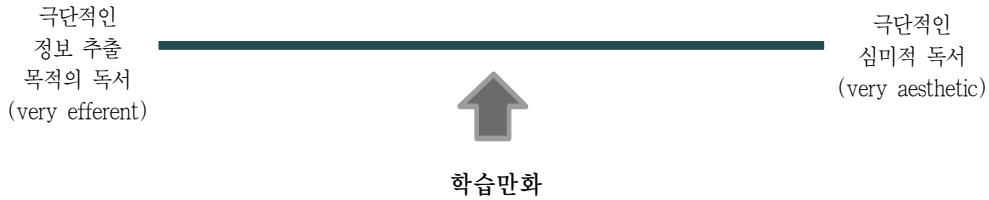
학습만화에서 다루는 주제는 신화, 전설, 역사, 경제, 과학, 수학, 외국어, 교양, 상식 등이 있다. 고전문학이나 인기있는 TV 드라마, 영화, 무서운 이야기 등이 재구성되어 학습만화의 형태로 출판되기도 한다. 학교의 교과과정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있는 학습만화도 있다 - 『교과서만화 3학년 과학』,<sup>2)</sup> 『교과서만화 5학년 세트 - 국어; 수학; 사회; 과학』<sup>3)</sup> 등(박화목 2003; 심의섭 2001).

만화 평론가 이승남은 학습만화의 오락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비록 학습만화가 학습적인 기능 때문에 일반 만화와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승남은 학습만화가 오락적 기능과 정보전달 기능의 두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매체라고 하였다(2005, 13). 즉, 학습만화를 읽음으로써 독자는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즐거운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로젠블랫의 거래이론(transactional theory)에 비추어보면 학습만화는 정보 추출 목적의 독서(efferent reading)와 심미적 독서(aesthetic reading)의 연속체(efferent/aesthetic continuum)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Rosenblatt 1986, 125; 2005, 10). 로젠블랫은, 독서란 특정한 독자와 특정한 텍스트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환경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독자가 그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1986, 123). 로젠블랫은 극단적인 정보 추출 목적의 독서방법과 극단적인 심미적 독서방법 사이에서 독자가 어떤

2) 박화목. 2003. 『교과서만화 5학년 세트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서울: 글수레.

3) 심의섭. 2001. 『교과서만화 3학년 과학』. 서울: 글수레.



〈그림 1〉 로젠블랫의 정보 추출 목적의 독서와 심미적 독서의 연속체 (Efferent/Aesthetic Continu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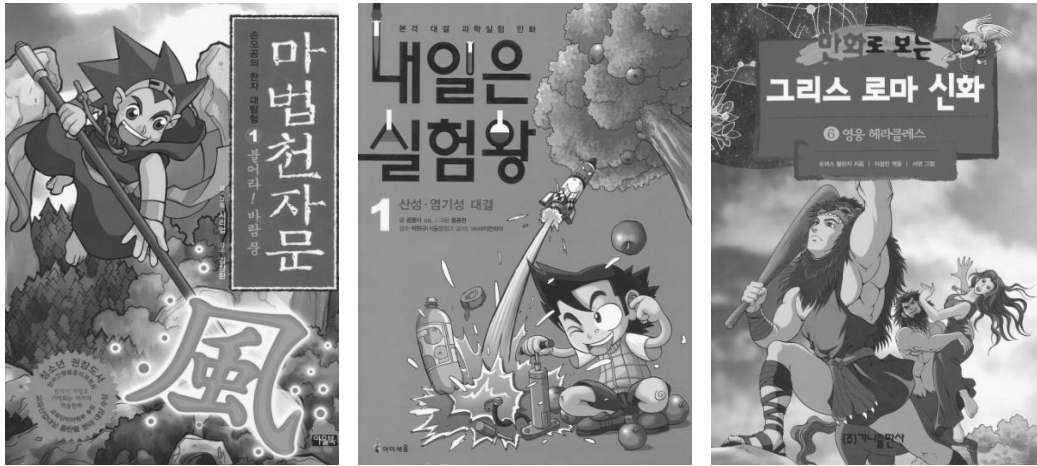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초점이 달라진다고 했다. 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독서하는 경우 독자는 독서 후에 얻어지는 것들, 즉 정보, 문체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심미적인 독서를 하는 경우 독자는 독서행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 즉 연상(聯想), 감정, 태도, 생각 등에 초점을 맞춘다(Rosenblatt 1978, 23-25).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법적 보고서 등은 정보 추출 목적의 독서 방법으로, 시나 희극 등은 심미적 독서 방법으로 읽힌다. 그러나 어떤 텍스트이건 독자의 선택에 따라 심미적으로 읽힐 수도 있고 정보 추출 목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Rosenblatt 1986, 123-124).

## 2.2 학습만화의 특징

노은혁은 일반 만화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여 독자에게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학습만화는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해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또한 일반만화에서는 그림이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가는 반면, 학습만화의 경우 대체로 그림은 글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만을 한다고 했다(2006, 36-38). 노은혁이 제시한 학습만화의 특징들은 2000년 이

전의 학습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학습만화 열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최근의 학습만화들에서는 일반 만화와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학습만화에서는 학습적인 요소와 오락적인 요소의 비율이 약 80대 20이었다(임종업 2005). 그러나 요즘 출판되는 학습만화에서는 학습적인 요소와 오락적인 요소의 비율이 약 65대 35로, 오락적인 요소의 비율이 늘어나 읽기에 더욱 재미가 있어진 것이다(홍재철 2005, 35). 만화평론가 박인하에 따르면 2000년 이후의 학습만화가 그 전의 학습만화와 가장 다른 점은 “‘학습’이라는 용어의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2005, 268).

최근의 학습만화들은 재미있는 스토리라인과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방식, 화려한 그림체, 매력있는 캐릭터 등 인기있는 일반 만화의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박인하 2005, 270; 표정훈 2009, 27). 박인하에 따르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형적인 RPG 게임(Role Playing Game)의 형식을 따른다. 주인공들은 모험을 떠나 ‘아이템’을 획득하고 여정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한다. 새로운 캐릭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갈등과 로맨스 또한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준다(박인하 2005, 270). 어린이들에게 인



〈그림 2〉 학습만화책의 표지그림들 - 『마법천자문』, 『내일은 실험왕』,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기있는 다른 학습만화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RPG게임의 형식을 직간접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전의 학습만화들에서는 주로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명랑만화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면, 최근의 학습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일반 만화나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다채로운 색을 이용한 화려한 그림체로 그려진다. 온라인 RPG 게임과 TV 애니메이션 등에 익숙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습만화는 그만큼 더 친근한 매체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 2.3 선행연구

많은 학자들이 학습만화와 독서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최영임, 한복희(2009)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만화와 일반도서에 대한 독서실태를 분석하고 학습만화를 통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재미를 위해 학습만화를 보며 여

학생보다 남학생이 학습만화에 더욱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학습만화를 일반도서와 연계하여 독서지도를 한다면 청소년의 독서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백진환, 한운옥(2011)은 학습만화 독서지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실행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관찰하고 학습만화 독서지도 프로그램 수업 후 학습만화 내용 평가결과, 독후활동지, 학습일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만화는 독서부진아 및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에 적절히 활용시 독서의욕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학습만화가 초등학생의 독서의욕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독서지도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종문(2012)은 초등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291명의 학생들과 203명의 학부모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 상당수가 학습만화 독서의 경험이 있었고 학습만화가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학습만화가 일반 독서로 이어지는 독서전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임영례(2009)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도, 학습만화의 학습내용적인 측면, 학습만화와 독서능력의 관계, 학습만화의 독자계층, 교과과정에 학습만화 이용시 장단점 및 발전방향 등을 기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118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만화 읽기를 일반 어린이책 읽기와 같은 독서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습만화의 학습적인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학습만화 내 정보검색의 효율성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의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교사들은 학습만화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중 성적이 중하위권이며 독서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재가 되며, 사회나 과학 과목에서도 효과적인 교재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강현주, 정현선(2009)은 국내에서 출판된 학습만화 중 '지식교양 만화'에 속하는 『초등과학 학습만화 WHY? 시리즈』와 '학습 중심 서사만화'에 속하는 『살아남기 시리즈』를 중심으로 학습만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만화의 장단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지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학습만화를 “‘문제적’ 텍스트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습만화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습만화가 좋은 지식과 정보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학습만화를 읽음으로써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지도 모르며 어린이들이 지식과 정보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포함된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상반된 시각의 초점에서 출발하였다.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이 학습만화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과 그 시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복잡한 이유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임교사 네 명과 사서교사 다섯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통하여 모집했다. 눈덩이 표본추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의 학교만이 정식으로 사서교사를 채용하며, 다른 곳에서는 계약직 사서교사를 고용하거나 학과목 담당교사 중 한 명이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정식 사서교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서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이지현 2003; 조미아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 사서교사를 모집할 때에는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초등학교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규직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표 1〉 참조).

인터뷰는 2010년 5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형식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기본적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심도있는 질문으로 발전해가는 방식이다. 해렐과 브래들리에 따르면 인터뷰 방식은 연구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 비구조화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구조화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가 그것이다(Harrell and Bradley 2009, 25). 이 중 본 연구에서 쓰인 반구조화 인터뷰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할 때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다. 반구조화 인터뷰에서 미리 준비된 질문 목록은

인터뷰 진행을 위한 유동적 가이드 역할을 하며, 인터뷰대상자에 따라 질문의 형식이나 문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은 모두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혹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이 반구조화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질문의 형태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각 인터뷰대상자와 인터뷰 상황에 맞는 질문을 유연성있게 맞추어감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대상자와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하여, 단순한 설문 항목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Harrell and Bradley 2009; Livesey and Lawson 2005; Mason 2004).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있는 인터뷰 기본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첫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후 연구자에게 추가의 질문사항이 생길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더욱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전화 인터뷰의 경우 평균 1시간, 이메일 인터뷰의 경우 평균 3-4회의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표 1〉 인터뷰에 참가한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에 대한 정보

	가명	경력
초등학교 담임교사	담임교사 A	10년
	담임교사 B	16년
	담임교사 C	6년
	담임교사 D	5년
초등학교 사서교사	사서교사 A	4년
	사서교사 B	9년
	사서교사 C	9년
	사서교사 D	5년
	사서교사 E	3년 6개월

〈표 2〉 인터뷰 기본질문 목록4)

항목	질문내용
일반사항	학교/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학습만화와 어린이의 관계	학생들이 학습만화를 읽나요?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만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학습만화가 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서지도 측면	(담임교사에게) 아침독서시간 <sup>5)</sup> 에 학생들에게 학습만화 읽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습만화가 있나요?
	학습만화가 일반 어린이책이나 일반 만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학습만화에 대한 인식도	학습만화의 인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학습만화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습만화를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료 담임교사/사서교사들은 학습만화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장서개발 측면	(사서교사에게) 학교도서관 장서에 학습만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서교사에게) 학교도서관의 전체 장서에서 학습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요?
	(사서교사에게) 학습만화를 별치해 두십니까?
실제 사례	학교/학교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학습만화를 읽는 것에 관련한 선생님만의 경험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학생, 부모, 다른 교사와의 갈등 포함)
교사 자신의 독서취향	어렸을 때 만화책을 읽으셨나요?
	지금도 만화책을 읽으십니까?

## 4. 연구결과

### 4.1 학교에서의 학습만화 이용행태

#### 4.1.1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학습만화 이용행태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담임교사 네 명 중 세 명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학습만화를 읽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보았다고 했다. 학생 중 누군가가 집에서 학습만화책 한 권을 가져오면 다른 학생들이 순서를 정해 돌려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일들은 주

로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담임교사 A는 “학교에 학습만화책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그 학습만화책을 덮지 못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남학생들은 “수업시간에도 책상 위에 학습만화를 크게 펼쳐놓고 읽는다”고 했다. 담임교사 B의 학생 중 몇 명은 “책상 서랍에 학습만화책을 늘 넣어두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꺼내어서 읽는다”고 했다. 담임교사 A과 담임교사 B 둘 다, 일부 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전체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동료 담임교

4)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표 2〉에 나열한 기본질문 목록은 인터뷰를 시작하는 기초 질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각 인터뷰대상자에 맞는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문들이 사용되었다.

5) 국내 초등학교 중에는 ‘아침독서’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10분가량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책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다.



사 중 일부는 수업 시간에 학습만화를 읽는 학생을 발견하면, 그 책을 압수하고 방과 후에 돌려준다고 했다.

#### 4.1.2 학교도서관에서 학습만화의 제적 및 폐기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사서교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학습만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학부모들은 학습만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학부모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대부분의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있는 학습만화 장서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 제기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어떤 학부모들은 도서관에 있는 학습만화를 모조리 다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떤 학부모들은 사서교사들에게 본인의 아이에게는 학습만화를 대출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도서관에 학습만화를 더 많이 비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학습만화는 도서관에서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운 사서교사 중에서는, 본인의 아이에게는 특별히 학습만화를 빌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안되겠냐는 학부모의 요청도 종종 받는다고 했다. 학습만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부모들의 입김이 센 경우 사서교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서관에 있는 학습만화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스스로 학습만화를 장서에서 추려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서교사들은 학습만화가 너무 많은 이용으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 그 학습만화에 대한 재구입을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높은

이용률로 인해 훼손된 장서는 새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서교사 자신이 판단하기에 예술적인 수준이 떨어지거나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책을 재구입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사서교사 B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를 다시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뷰 당시 『마법천자문』 시리즈는 재구입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사서교사 B에 따르면 『마법천자문』 시리즈 재구입에 대한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마법천자문』 시리즈의 학습적인 효과에 대한 회의보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오직 학습만화책만 보려는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사서교사 B 자신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오로지 학습만화에만 열중하는 것이 본인의 눈에 참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사서교사 다섯 명 중 세 명은 학부모, 교사, 교장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의 압력으로 인해, 도서관에서 학습만화를 제적한 적이 있거나 혹은 수서할 때 학습만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서교사 A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습만화 장서가 600권 가량 있었다고 했다. 학교도서관의 총 장서가 18,000권이었으므로 약 3%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학습만화가 너무 많이 있어 도서관이 흡사 만화방처럼 보인다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받

영하여 2년동안 학습만화를 조금씩 폐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약 200권의 학습만화만이 남아 있다고 했다.

사서교사 C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만화책 구입은 자제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했다. 사서교사 C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은 만화책이라는 장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교감선생님 자신이 어렸을 때 만화책을 읽어보지 않아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사서교사 C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에서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인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를 폐기하기도 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의 내용과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고 했다. 사서교사 C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장서에 대해서도 학부모 본인들의 의견을 수시로 표현한다고 했다.

담임교사 D는 학급 담임이면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없기 때문이었다. 담임교사 D가 근무하는 학교의 전임 교장선생님은 학습만화, 일반만화, 시리즈책을 전혀 구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었는데, 이 때문에 학습만화를 구입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습만화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요청하는 책은 무엇이든 다 구입해주라고 지시하여, 현재 그 학교의 학교도서관 장서 중 약 5%가 학습만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들에서는

평균 학교도서관 전체 장서의 약 4-5%가 학습만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사서교사 모두가 동의한 것은 도서관 장서에서 학습만화를 제적시켰을 때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불평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D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학습만화를 폐기하자 학생들이 반발했는데, 책들이 낡아서 폐기한 것이라고 하니 설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서교사 C는 몇 년 전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에 처음 왔을 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 대부분이 학습만화책 혹은 일반 만화책만 읽고 학습만화책이나 일반 만화책만 대출하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서교사 C는 새로운 도서관 방침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습만화책이나 일반만화책을 빌리려면 꼭 일반 어린이책도 한 권 빌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에는 학습만화나 일반만화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사서교사 C는 도서관 대출 방침을 매우 조금씩 천천히 바꾸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학생들의 반발은 예상외로 엄청났다고 한다. 사서교사 C는 학생들로부터 “학습만화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왜 대출이 안되는지”, “무슨 이유로 대출이 안되는지”, “한 권이라도 대출 해달라”는 원망어린 요구를 많이 들어야 했다고 한다. 사서교사 C는 시간이 더 흐르자 학생들이 “학습만화 또는 일반만화에 대한 욕구를 자제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서관 방침(학습만화는 대출이 되지 않는 방침)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의 학습만화 이용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만화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으며 수업시간에조차 학습만화를 덮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의 행동이 전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등 담임교사들에게 학습만화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학부모나 다른 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학교도서관에서 학습만화 장서가 제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사서교사는 학부모나 다른 교사들로부터의 외부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학습만화 장서의 폐기 여부를 스스로 고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학습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 4.2 학습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4.2.1 일회성 독서자료로의 학습만화

사서교사 C는 학습만화 열풍이 “책 자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서교사 C는 “오늘날의 한국 어린이들이 독서를 할 때조차 학습을 염두에 두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사서교사 C가 보기에 학습만화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없는, 그저 일회성에 그치는 눈요깃감일 뿐이었다. 비록 학습만화를 펴내는 출판사들이 학습만화의 교육적인 효과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서교사 C가 보기에 학습만화는 아주 얇은 지식만을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 4.2.2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 저하 우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담임교사와 사서교사

들은 전반적으로 학습만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학습만화가 조잡한 그림과 서투른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비문, 자극적인 표현, 비속어가 대부분이며 틀린 정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사서교사와 담임교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린이들이 학습만화를 자주 보게 되면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림 없이 줄글로만 된 책을 영영 읽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서교사들은 그림책으로 책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독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일반 어린이책 읽기로 옮겨가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학습만화를 많이 읽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독서로 옮겨가지 못하고 계속 만화 형식의 책만 읽게 되는 ‘낮은 수준’의 독서에 머무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담임교사 C는 원래 학습만화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Why?』<sup>6)</sup> 시리즈 같은 학습만화에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권장할만 한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자라면서 학습만화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했다(인터뷰 당시 담임교사 C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담임교사 C의 아들은 그림책을 무척 좋아했었다. 책 읽는 것 자체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5-6세경 학습만화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다. 학교 숙제 등으

6) 『Why?』 시리즈는 예림당에서 펴낸 학습만화 시리즈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학습만화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시리즈이다. 학습적인 요소와 오락적인 요소가 잘 조화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로 꼭 일반 어린이책을 읽어야 하는 경우에는, 책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한다고 했다. 금방 읽은 책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담임교사 C는 아들이 학습만화를 읽기 시작하면서 독서능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학습만화를 읽을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읽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책을 읽을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읽는 것 같다는 추측이었다. 즉, 학습만화를 읽을 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독서방법을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A는 학습만화의 부작용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학습만화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재미있는 그림만을 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서교사 A가 근무하는 학교의 도서관에는 한 번 읽었던 학습만화책만을 계속해서 빌려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왜 매번 똑같은 책만 빌려가냐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읽었던 그 학습만화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 책 말고는 읽을 책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사서교사 A가 근무하는 도서관은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치고 결코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아니다. 단지 학습만화가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뿐이다. 사서교사 A는 ‘읽을 책이 없다’고 말하는 어린이들은 학습만화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만화가 아닌 형태의 책, 즉 글씨가 많은 책을 읽어볼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학습만화에 대한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만화를 일회성 눈요깃감의 독서자료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둘째,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 대부분이 학습만화가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 저하를 유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 4.3 학습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 4.3.1 “학습적인” 학습만화

담임교사 C는 학습만화를 두 부류로 분류했다- 아무런 학습효과 없이 그저 어린이들이 재미로 읽는 책과 실제로 학습적인 효과가 있는 책. 담임교사 C에 따르면, 후자의 책, 즉 실제로 학습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책을 읽는 어린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담임교사 C에 따르면, “학습적인” 학습만화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기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어린이들만이 “학습적인” 학습만화 읽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어린이들은 “학습적인” 학습만화 읽기를 통해 지식을 쌓아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적 호기심이 더욱 증가하여 또 다른 “학습적인” 학습만화를 읽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어린이들은 학습적인 내용도 없고 글과 그림의 수준이 낮으며 그저 재미만을 추구하는 학습만화를 주로 찾는다고 했다. 담임교사 C는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학습적인” 학습만화를 읽고 교과진도를 따라올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고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그런 (학습적인) 책읽기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담임교사 C는,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이들은 “학습적인” 학습만화를 읽음으로써 더욱 더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저 재미만을 추구하는 이런 패턴이 궁극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학생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담임교사 A는 대체로 학습만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번, 학급 독서 시간에 반 전체가 같이 읽을 책으로 학습만화책 한 권을 선정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담임교사 A의 학급에서는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키우기 위하여 5주에 4권의 책을 읽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담임교사 A가 지정

한 학습만화는 만화가가 이아린이 만든 『자연을 닮은 우리 옷 한복』<sup>7)</sup>이었다. 이 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담임교사 A는 만약 학급 독서시간에 읽을 책으로 한복에 대해 설명하되 그림이 없고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책을 골랐더라면, 많은 학생들이 읽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책을 읽더라도 (내용이 길고 지루해서) 한복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되거나 한국 역사가 지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학습만화책을 읽은 후로 담임교사 A의 반 학생들 모두가 그 책이 너무나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한복이 이렇게 멋있는 옷인 줄 몰랐었다고도 했다. 이 때의 경험을 통하여 담임교사 A는 “아하, 어린이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만화 형태로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생



〈그림 3〉 『자연을 닮은 우리 옷 한복』 중

7) 이아린. 2006. 『자연을 닮은 우리 옷 한복』. 파주: 한울수북.

각하게 되었다. 담임교사 A는, 그동안은 학습만화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보아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만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에 참가한 다른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 중 담임교사 B, C, 사서교사 A, B, C 역시 만화 형식이 어린이들에게 역사나 지리를 설명하는 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4.3.2 독서부진아를 위한 좋은 독서자료

글래저(Deborah Glasser)는 만화 『아치(Archie)』<sup>8)</sup>가 또래에 비해 독서수준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말했다. 『아치』의 단어와 문장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지만, 책의 내용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Krashen 2004, 100).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일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에 따르면 똑같은 논리가 학습만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담임교사 A는 자율 독서 시간에 학생들에게 본인이 읽고싶은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일부 여자아이들이 학습만화를 읽고는 담임교사인 본인에게 와서 “책을 읽었어요”라고 말한다고 했다. 또래에 비해 독서수준이 뒤처지는 그 여자아이들에게는 쉽게 읽히는 학습만화책이 수준에 맞는 독서자료가 되는 셈인 것이다. 사서교사 A는 학습만화가 어린이들에게 책이라는 매체를 친근하게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습만화보다) 글이 더 많고 글씨체가 더 작으며 그림의 양이 줄어드는 일반 어린이책 읽기로 발전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서교사 E는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사서교사와 담

임교사들 중에서 가장 학습만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습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책도 보기 싫어하는 아이조차 학습만화 읽기는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서교사 E는 학습만화를 읽으며 즐거웠던 경험이 ‘즐거운 독서경험’으로 인지되어 점차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서교사 C는 “비록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만화’인 학습만화를 좋게 보지는 않지만, 일반 어린이책을 읽기 버거워하는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학습만화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사서교사 C는 독서능력이 미흡한 어린이들이 학습만화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학습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은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질 좋은 학습만화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학습만화들을 “학습적인” 학습만화라고 일컬었다.

둘째, 학습만화가 독서부진아에게 훌륭한 독서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 4.4 학습만화 평가 기준에 대한 필요성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반 학생 전체가 함께 학교도서관으로 이동하여 도서관에 있는 책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읽는 경우도 있고, 교실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8) 아치(Archie)는 미국의 국민적인 청춘만화 시리즈이다. 미국의 소도시 리버데일에 사는 고등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다룬 내용으로 194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독서를 하기도 한다. 이 때 읽는 책은 학생이 집에서 가져온 것이거나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것이거나 학습문고에 있는 책이다.

독서시간이라고 해서 모든 책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책이 독서시간에 읽을 책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담임교사의 몫이다. 학생들은 종종 학급 독서시간에 읽을 책으로 학습만화를 가져오는데, 인터뷰에 응한 담임교사 네 명 모두가 학생들이 가져오는 학습만화가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습만화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면 담임교사들은 “학습적인” 학습만화는 괜찮다고 대답하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학습적인” 학습만화 인지는 본인들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담임교사들은 책 표지를 보고 내용을 재빨리 대충 훑어보고 나서 학급독서시간에 읽어도 될지 안될지를 결정한다고 했다. 대체로 『Why?』 시리즈처럼 학습적이라고 널리 알려진 학습만화는 허락하고,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학습만화들은 금지한다고 했다.

담임교사 A는 이러한 결정이 상황에 따라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학습만화가 학습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담임교사 A가 이용하는 전략은 바로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다. 학급 독서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책을 읽고 있을 때 담임교사 A가 보기에 학습적이지 않을 것 같은 학습만화를 읽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거 정말 학습만화 맞니?”라고 물어본다고 했다. 만약 학생이 갑자기 움츠러들면서 그 책을 책상 밑으로 숨기려고 한다면 담임교사 A는 그 책을 금지해야겠다고 확신한다. 만약 그 학습만화가 정말로 학

습적인 것일 때에는 학생이 담임교사 A에게 그 책의 어떤 부분이 학습적이고 어떤 부분이 교과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러 한다고 했다. 그러면 그 책을 직접 다시 한 번 훑어보고 읽어도 좋다고 허락해준다고 했다. 담임교사 A에 따르면, 어떤 책이 학습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담임교사 D는 어떤 학습만화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담임교사 D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학습만화 중에도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옳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사서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습만화 수서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사서교사들 각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었다. 그 기준들 중에는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신뢰도, 유머의 수준(저질 유머가 아닌 수준 있는 유머여야 함), 학습적인 내용과 오락적인 내용의 비율(학습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야 함), 그리고 텍스트와 그림의 수준 등이 있었다. 비속어가 있거나 폭력적, 선정적 장면이 있는 책들은 수서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사서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도서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사서들 각각이 학습만화 수서에 대한 나름의 판단기준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그 기준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담임교사 B는 학습만화에 대한 특별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 B에 의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는 학습만화를 금지해야 할지 권장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을

보면, 어떤 반에서는 모든 학습만화가 허락되고, 어떤 반에서는 담임교사 판단에 따라 허락여부가 결정되고, 어떤 반에서는 학습만화라면 무조건 금지되고, 또 어떤 반에서는 학생들 판단에 맡기는 등 한 학교, 한 학년 내에서도 학습만화에 대한 대응방법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한다고 했다. 담임교사 B는 학습만화에 대한 적절한 판단기준의 부재가 학교 전체의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데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학습만화 평가 기준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들의 학습만화 평가기준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학습만화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학급독서시간에 허용되는 학습만화책의 범위가 담임교사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서, 학교 전체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 일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학습만화 수서에 대한 평가기준 미비로 인하여 각 사서교사의 주관에 학교도서관 학습만화의 수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어있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에 응한 사서교사와 담임교사들은 대체로 학습만화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

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의 학습만화가 조잡한 그림, 비문, 자극적인 표현, 비속어, 틀린 정보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담임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도 학습만화를 보려고 하여 전체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등 학습만화가 학교에서 큰 골칫거리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일부 사서교사들은 학부모나 다른 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학교도서관 장서에서 학습만화를 제적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부모나 다른 교사들의 외부 압력이 없는데도 스스로 학습만화장서의 폐기 여부를 고민하는 사서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사서교사와 담임교사들 대부분이 학습만화 읽기가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 저하를 유발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셋째, 일부 교사들은 학습만화가 독서부진아에게 좋은 독서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습만화를 통하여 그 어린이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줄글책을 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만화에 대한 열정이 일반 어린이책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넷째, 일부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은 학습만화 중에 정말로 학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학습만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이런 학습만화를 “학습적인” 학습만화라고 지칭했다.

다섯째, 사서교사와 담임교사 모두가 학습만화에 대한 특별한 판단기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담임교사와 사서교사들은 저자와 출판사에 대한 신뢰도, 유머의 수준, 학습적인 내용과



오락적인 내용의 비율, 텍스트의 수준 등 학습 만화에 대해 각자 나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학습만화에 대한 판단기준의 부재 때문에 학교 전체의 독서교육 방향에 혼란이 온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었다.

## 5.2 제언

흥미롭게도, 인터뷰에 응한 사서교사 다섯 명 모두는 현재에도 만화책 독자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담임교사 네 명은 모두 현재 만화책 독자가 아니었다. 사서교사들은 모두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화 읽기를 좋아해왔다고 했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사서교사들은 어릴 때 학습만화책을 읽어본 적도 있다고 했다. 담임교사 중 두 명은 사춘기때 순정만화를 조금 읽기는 했으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만화책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만화책 독자인지의 여부에 나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40대인 사서교사는 자신이 만화책 독자라고 밝혔고, 30대인 담임교사는 만화책을 읽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이 현재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학습만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사

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학습만화의 내용과 구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담임교사 중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덕분에 학습만화를 몇 권 읽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담임교사들은 학습만화를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담임교사들은 일부 인기있는 학습만화의 제목 정도는 알고 있었고, 가끔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져온 학습만화책을 대충 넘겨본 적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들여다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화책 읽기를 즐기는 이들이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사서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현재 많은 어른들이 염려하고 있는 ‘학습만화 읽기가 일반 어린이책 읽기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기성세대의 거부감에서 비롯된 우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등장한 학습만화가 과거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라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만화를 읽기 시작하는 연령과 평생독서습관 형성과의 관계, 학습만화 읽기가 일반 어린이책 읽기에 미치는 영향, 학습만화 선정 및 수서 기준 등에 대하여 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현주, 정현선. 2009. 학습만화 『초등과학 학습만화 WHY? 시리즈』와 『살아남기 시리즈』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독자 인식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21: 163-200.
- [2] 김승민. 1989. 『학습만화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 [3] 노은희. 2006. 『학습만화의 표현형식과 유용성 연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 [4] 라경례. 2007. 2007년 7월 19일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에서 연구자와의 인터뷰.
- [5] 백진환, 한윤옥. 2011. 학습만화독서지도 및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3-229.
- [6] 이승남. 2005. 학습만화 정의. 『한국만화 가이드북: 학습만화』. 부천: 부천만화정보센터.
- [7] 이종문. 2012.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27-246.
- [8] 이지현. 2003. 우리나라 초등학교 도서관의 도서선택에 관한 사례 연구. 『독서문화연구』, 3: 83-115.
- [9] 임영례. 2009. 『학습만화를 통한 독서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10] 임종엽. 2005. 학습만화 애들에게 사줄 만합니다. 『한겨레』, 6월 30일.
- [11] 조미아. 2009. 학교도서관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전문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493-516.
- [12] 최영임, 한복희. 2009. 학습만화를 활용한 효율적인 독서지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51-270.
- [13] 표정훈. 2009. 학습만화 열풍의 명암. 『출판문화』, 46(4): 26-29.
- [14] 홍재철. 2005. 편집자와의 이야기. 『한국만화 가이드북: 학습만화』. 부천: 부천만화정보센터.
- [15] 황혜연. 2006. 『학습만화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 학습 만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16] Harrell, M. C., & Bradley, M. A. 2009. *Data Collection Methods: Semi-Structur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17] Henn, M., Weinstein, M., & Foard, N. 2006. *A Short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18] Krashen, S. D. 2004.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Westport, Connecticut: Libraries Unlimited.
- [19] Livesey, C., & Lawson, T. 2005. *AS Sociology for AQA*. London: Hodder Education.
- [20] Mason, J. 2004. "Semistructured Interview." In Lewis-Beck, M. S., Bryman, A., & Liao, T. F. *The Sage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21] Rosenblatt, L. M. 1978.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22] Rosenblatt, L. M. 1986. "The aesthetic transaction."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20(4):

122-128.

- [23] Rosenblatt, L. M. 2005. *Making Meaning with Texts: Selected Essays*. Portsmouth, NH: Heineman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ang, Hyeon-ju., & Jeong, Hyeon-Seon. 2009. "The storytelling of educational cartoons and the readers' perceptions: Focusing on the WHY series and Survival series." *Reading Studies*, 21: 163-200.
- [2] Kim, Seung-Min. 1989. *A Study on Educational Graphic Novel's Educational Function*.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 [3] Noh, Eun-Hyeok. 2006. *A Study on the Expression Style and Benefit of Educational Cartoon: Focusing on <Greek Roman Myths Seen by Cartoon>*. M.A. thesis, Sejong University.
- [4] Ra, Gyeong-Rye. 2007. Personal Communication(Interview).
- [5] Paek, Jin-Hwan, & Han, Yoon-Ok. 2011. "An action research of reading instruction on edutainment comics and its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3-229.
- [6] Lee, Seung-Nam. 2005.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graphic novels." *Korean Comics Guidebook: Educational Graphic Novels*. Bucheon: Bucheon Cartoon Information Center.
- [7] Lee, Jong-Moon. 2012. "An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 parents to comics for learning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227-246.
- [8] Lee, Ji-Hyeon. 2003. "A case study on the select materials of the elementary school's library in our country."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3: 83-115.
- [9] Im, Young-Rye. 2009. *A Study on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n Reading Education Using Educational Cartoons*.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0] Lim, Jong-Eop. 2005. "Are educational graphic novels worth buying to children?" *Hankyoreh*, June 30.
- [11] Cho, Mi-Ah. 2009. "A study on the roles of school library professionals followed by environment changes of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493-516.
- [12] Choi, Young-Im, & Hahn, Bock-Hee. 2009. "A study on the plans of efficient reading guidance

- through a studying carto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51-270.
- [13] Pyo, Jeong-Hun. 2009.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educational graphic novels.” *Chulpan Munhwa*, 46(4): 26-29.
- [14] Hong, Jae-Cheol. 2005. “A conversation with the editor.” *Korean Comics Guidebook: Educational Graphic Novels*. Bucheon: Bucheon Cartoon Information Center.
- [15] Hwang, Hae-Yeon. 2006. *A Study on the Educational Roles of Learning Comics*. M.A. thesis, Kyung Hee University.